



『외교』지 구독에 관하여

먼저 본 『외교』지를 애독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외교』지는 1987년 계간지로 발족하여 2011년 1월 현재 제96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본 『외교』지는 국내외 각계로부터 좋은 반응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주변에 『외교』지에 관심 있으시거나 또는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를 널리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독코자 하시는 분들께 찬조금 형식의 순 실비 대금으로 배포하였던 바,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외교』지의 수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당 협회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외교』지를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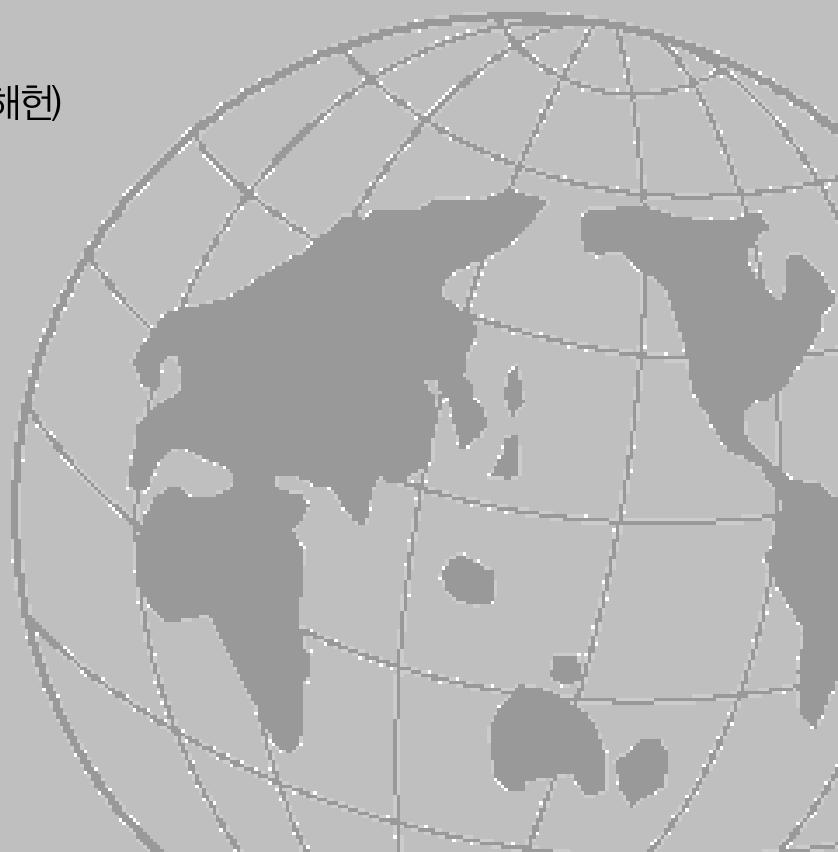
계간 『외교』	792-201122-01-004(우리은행, 한국외교협회)
비회원 협회 구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구독(4회) : 20,000원• 2년 연속 구독 : 36,000원
시내 대형서점 (교보문고·영풍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권 : 5,000원

※ 문의처 : 『외교』지 편집실 ☎ 02-2186-3613, 02-585-6475
FAX. 02-585-6204 E-mail. editorial@kclf.or.kr

(사)한국외교협회 『외교』지 편집위원회

회원칼럼/신간

- 문세광의 대통령 영부인 시해와 한일관계
-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외교(이순천)
-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박재선)
- 이것이 행복(최용삼)
- 자작나무와 프랑스어(정해현)



문세광의 대통령 부인 시해와 한일관계**

윤 하 정*

I. 사건의 발생

1974년 8월 15일, 국경일 기념식을 마친 후, 주일한국대사관 일부 직원들은 윤 공사와 함께 기념 골프대회차 동경 북쪽 미 공군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벌이고 있었다. 잘 개인 하늘 아래서 선두팀의 윤 공사가 마치 제2번 홀의 티그라운드에서 티 솟을 치려고 흰 볼을 겨누고 있을 때, 전방에서 백색군복의 미 현병 2명이 탄 백색 짚차가 전속(全速)으로 그쪽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도착한 차에서 급히 내린 미 현병 상사가 윤 공사가 누구냐고 찾기에 윤 공사는 신분을 밝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바, 방금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괴한의 저격을 당하였다는 급보(急報)를 공사에 지급(至急) 전하여 달라는 한국대사관으로부터의 부탁이 있었노라 했고, 그 현병 짚차를 타고 기지 미군 현병사령부로 가자는 것이었다. 놀란 윤 공사는 남은 직원들에 경기를 계속하라고 하고, 그 짚차로 기지내 현병사령부로 가보니, 역시 종전

기념 휴일로 텅빈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당직 일직 현병 장교가 앞에 놓여 있던 일화(日貨) 동전을 손안 가득히 잡아 윤 공사에 주면서 그의 사무실 바로 옆에 놓인 일본 공중전화를 가르키며 즉시 한국 대사관을 불러 보라는 것이었다. 당직 대사관 직원과의 통화로써 대략 사정을 들은 후 윤 공사는 그 자리에서 대사관으로 달려갔다. 대사관에 도착하여 계속 입전하는 본부로부터의 정보는 육영수(陸英修) 영부인 서거를 포함한 저격사건의 진상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민단주최 8·15 교민 경축대회에 참석중인 김영선 대사는 아직 오지 않았고, 대사관도 비어 있었다.

저격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범인 문세광의 신분은 재일조총련(在日朝總聯)에 속하는 한국교포로서 8월 6일, 일본 여권으로 입국하였음이 밝혀졌으며, 고인이 일본 거주 한인(韓人)이란 사실에서 조총련도 개입되었을 것임을 직감하고, 본 사건이 양국 외교관계상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느낀 윤 공사는 우선

* 전 주일공사, 외무부 차관

** 편집자주: 본 칼럼은 필자가 준비중인 회고록의 일부분으로서 주어가 제3인칭으로 되어 있음을 첨기함.

일본 외무성의 다카시마(高島) 아주국장과의 면회를 요청하고 다음날 조속히 외무성을 방문키로 하였다.

범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던 그날, 일본 전국의 TV 정오 뉴스들도 이 사건을 긴급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여기서 윤 공사를 경악시키고 분노케 한 사실은 일본방송의 본산인 NHK 방송이 본 사건의 배경에 대한 추측해설을 하면서 윤 공사도 지면(知面)이 많았으며 전 NHK 서울 주재 특파원이었던 해설기자가 이 사건이 1930년대 전 독일 히틀러 정권 당시 발생한 독일국회 화재사건을 연상케 하며, 당시 히틀러정권이 이 화재는 마치 독일공산당원의 방화로 인한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로써 반정부 세력이었던 독일공산당을 완전 숙청한 소행을 소개하며 엉뚱한 보도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사적으로 심히 당혹한 윤 공사는 즉시 엄중 항의차 NHK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긴급을 요하는 일인 바, 당시 NHK의 마에다(前田) 총재를 직접 면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NHK 직원은 마침 동 총재가 하계 휴가차 가루이자와(輕井澤)란 하기휴양지에 여행 중이어서 동경을 떠나 있다고 하며 거절하였기에 총재 부재중 다음 책임자와의 면회를 요구하였던 바 편집국장을 소개하여 주었다.

윤 공사는 그에게 일본 제일의 권위와 시청률을 가진 공영 NHK란 대방송이 현재 한국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와중에 과거 나치스의 망령까지 인용하며 아무런 근거없고 무책임한 이런 방송을 함으로써 일본국민의 반한적(反韓的) 오해를 자아내고 양국간 우호관계를 심히

손상시킨 것이라고 강한 기세로 항의를 한 후 이에 대한 진사(陳謝)와 정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동 편집국장은 우선 그런 상황을 인정한 듯 개인적인 동정과 진사의 뜻을 표시한 후 즉시 편집관계 요원들과 상의하고 대답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 공사는 납득이 갈 만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응접실에서 대기하였다. 약 1시간 관계관들과의 회의를 마친 편집국장은 다시 나타나서, 윤 공사의 뜻을 잘 이해하고 진사와 정정을 할 것이라고 답하기에 윤 공사는 그 정정방송 내용에 관하여 서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 편집국장은 다시 그들 사이에서 상의하고, 발표문안을 작성하여 가져왔다. 동 문안은 대체적으로 적당하다고 여겨졌으나, 방송 오도의 시인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에 더욱 확실한 표현과 함께 NHK의 체면을 고려하여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 문맥에 상호합의 하고, 발표 시간을 그날 저녁 골든 아워인 7시 뉴스로 정하였다. 윤 공사는 그 자리에서 NHK가 즉각 보여준 성의와 노력에 개인적인 감사표를 정중히 표시하였다.

대사관에 돌아와 동일 저녁 7시 NHK 뉴스를 기다렸던 바, 동시간 뉴스에 방송되지 않았다. 회의를 느낀 그는 다시 NHK 편집국장에게 전화로 어찌된 것인가 하고 문의한 바, 준비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다는 변명과 함께 밤 10시 뉴스에서 보도할 것을 다시 다짐하였다. NHK는 10시 뉴스방송에서 합의된대로, 본건 정보도와 함께 양 국민에 끼친 오해에 대하여 심심한 진사를 표하였다. 이 보도

사건의 조기 낙착 후, 박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한 어떠한 혓된 보도도 없었다. 이러한 정정방송은 NHK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후문이었다.

Ⅱ. 외교적 접촉

윤 공사는 약속대로 8월 16일 다카시마 아주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이 사건의 양국 외교관계 상의 우려할 만한 문제가 될 점에 관하여 견해를 교환하면서, 이런 문제가 확대되어 다시 양국 외교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 것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서로 공감하였다. 범인 문세광(文世光)의 일본여권 소지와 일본으로부터의 출국 및 불법 한국 입국 등 여러 가지 관련문제에 대하여는 일본 외무성의 조약국장을 지낸 국제법통인 다카시마(高島) 국장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1년 전 김대중씨 사건 때와 달리 한일 양측 공방의 입장이 역전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씨 사건에서 이미 유사한 경험을 겪은 양국 외교상대자들 간에는 자연히 서로의 처한 입장도 잘 이해하고 통하는 면이 생겼다.

일본 측은 우선 오사카 경찰본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문세광과 그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펴고, 따로 경찰청 차장 및 관계간부들로 구성된 '박정희대통령저격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8월 20일 외교문서로써 문세광 여권은 요시이 유끼오(吉井行雄)란 일본 명의로 발급된 것이며, 이를 몰수

하였음을 통고하였다. 이 여권은 문세광과 친분이 있는 일본 여인의 남편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이며, 그 수속 일체는 요시이 부인이 준비한 것이다. 그 여인은 여권 위조 및 사건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일본정부는 이어서 저격에 사용된 권총은 오사카경찰청 다카쓰(高津)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등 ICPO(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10회에 걸쳐 수사 상황을 통보하여 왔다.

특히, 범인은 일찍부터 좌경 학생으로 활동하였으며, 일본내 조총련계 반한단체인 韓青大阪生野支部의 단원이었다. 김대중씨 사건 직후인 1973년 9월에 조총련 간부였던 김용호란 인물의 지도 하에 박대통령 시해 모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래 조총련의 동경조선인학교 구내에서 관련된 훈련을 받았으며, 그의 학습, 숙소로써 조총련 병원에서 숙박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외교 문서를 통하여 8월 26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일간 수사 협조와 아울러 특히 조총련에 대한 수사와 규제강화, 일본내 공범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였다.

이전부터 일본 경찰은 조총련 본부와 그 조선인학교에 대하여는 검색 등 본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거의 완전한 일종의 치외법권의 취급을 하고 있었다. 그 덕으로 이들 일본내 준(準)북한기관은 반한운동의 공공연한 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대사관도 거듭 항의하여 왔다. 당연히 대사관은 이번 박대통령의 시해 음모와 그 본거지가 된 조총련 본부와 조선인학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색 및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일본측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해방직후 원래의 재일한국인단체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오던 조총련(약 400만 이상 인원)은 일본 사회당 등 좌익정당, 사회단체의 지원과 비호 아래 준(準) 북한 정권의 외교기관적 역할을 하여 왔으며, 일본정부 당국이 이들에 대한 강력 규제 조치를 취하면 항시 재일조선인에 대한 부당 차별과 탄압이란 명분하에 대규모 시위와 집단적인 사회소요를 야기시키고, 일본 좌의세력들은 이에 합세하고 이를 원조하고 정부 공격의 기회로 이용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일본 사법당국도 이에 대한 강력 조치는 기피하고 주저하여 왔다. 한국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일본정부의 편파적인 관행과 숙폐를 근본적으로 저지시키도록 일본정부에 적극 요망하였다.

윤 공사는 다카시마 국장과 만나 조총련은 한일 간의 이간과 반한활동으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해치고 있으며, 조총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정부당국의 부작위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국제관례 상으로서도 이번과 같이 우호국 간에서 그 일국(一國)이 타국에 대한 파괴행위와 그런 목적의 기지를 일본 내에서 제공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거듭 조총련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조선인학교에 대한 전면적 검색, 김용호 등의 사건 공범혐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다카시마 국장도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양해의 뜻을 표명하고, 이 방향으로의 노력을 다짐하였다.

수일 후 일본 수사당국은 처음으로 조선인학교 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별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윤 공사는 다카시마 국장을 방문하여, 본 문제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일괄타결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일본정부의 대(對) 한국특사파견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다카시마 국장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피하고, 그에 관한 가부간 회답은 차후 알려주리라 하고 끝냈다.

얼마 안 되어 그날 오후에 동 국장은 윤 공사에게 전화를 통하여 이 제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불가피한 선약으로 인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나카에(中江) 아주국 차장을 만나, 본 문제를 상의하기 바란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동 차장을 저녁식사에 초대하기로 하고, 오후 7시에 동경도 미나토(港)구에 있는 한국 요정(料亭)인 한국관(韓國館)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 자리에는 나카에 차장과 김대중씨 사건 당시에도 서로 친밀하고 절충상대였던 이상진(李相振) 정무참사관도 동석하였다. 나카에 차장은 기무라(木村) 외상도 양승(諒承)하고, 그리 추진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하면서, 일본측 특사로써 특히 누구를 희망하는가 하고 묻기에 우선 본부에 보고 후 대답하기로 한 후 만찬석으로 초대하였던 바, 그는 외무성에서 기무라 외상이 한국측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 즉시 돌아가서 지급(至急) 보고하기로 하였다 하면서 서둘러 돌아갔다.

본부에 여사(如斯) 보고하였던 바, 이를 환영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등 양자 우호친선관계 증진에 공헌이 있고, 일본정계

에서도 영향력이 큰 일본내 지도급 인사를 원한다는 회전을 받았다. 윤 공사는 그러한 취지로 회답하고 은근히 사토 에이사꾸(佐藤英作) 전 수상과 자민당 중진의 한 사람이며 한일 국교수립시 외상이었던 시이나 에쓰자부로(椎名悅三郎) 자민당 부총재를 바란다고 하였다. 며칠 후 나카에 차장은 아마 양 일본지도자 측과의 접촉 후, 사토 전 수상은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이 특사 제안을 사양하였다 하면서 시이나 부총재가 기꺼이 동 특사로의 청을 수락하였다고 하였다. 외무본부도 이를 환영하였다.

이어서 일본 외무성은 9월 10일, 시이나 사절(使節) 파한(派韓)을 발표하고, 동월 19~20일 양일, 특사는 다나카 수상의 박정희 대통령 앞 친서를 휴대하고 한국 대통령과 회담키로 하였다. 사절단은 정계에서 가네마루신(金丸信), 우노 소스케(宇野宗祐) 등 5명의 유력한 중의원 의원과 외무성의 아리다 케이스케(有田圭輔) 심의관, 나카에 요스케(中江要介) 아주국 차장 등 8명 기타, 경시청, 공안관계(公安關係) 간부 등을 포함한 비교적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김영선 대사와 윤 공사는 시이나 부총재의 저택으로 그를 예방하였다.

외무성은 별도로 시이나 특사가 외교문서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입장 표명과 차후 취할 조치를 약속키로 하였다. 그 내용은 미리 실무 간에서 합의된 것이며 주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제시한 사항이며, 이를 외교문서(aide-memoire) 형식으로 공동 작성한 이례적인 것이었다. 한국 측에서 특별히 요구한 일본정부의 조총련 규제 문제는 일본 측에서 그

공식 외교문서에 언급할 성격이 못 된다하여 외교문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시이나 특사가 구두로 진술하는 형식으로 하되, 별도의 외교문서(oral statement)에 기술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문안은 외무성 측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특사 파견 준비는 양측 간에서 매우 순조로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상황 속에서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9월 5일 서울에서, 종전부터 대체로 대일감정이 좋지 못하였고, 이번 일본정부 처사가 미진하다고 격분한 일부 군중들에 의한 격렬한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는 주한일본대사관에 난입하여, 방화와 대사관내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흥분한 한시민의 손가락 절단행위 등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일부 행동부원들은 옥상에 게 얹된 일장기를 내리고 불태웠다. 일본정부는 즉각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 특히 국기 파손과 대사관역내 침입을 국가적 모독이며, 중대한 주권침해라고 간주하였다.

가장 두려워하였던 한국 국민감정의 폭발과, 폭행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한 외무부는 사건발생 후 즉각 이례적으로 신정섭 아주국장과 김정태 정무차관보를 일본대사관으로 파견하여 일본대사에게 정중한 진사와 함께 대사관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 원상복귀, 범인들의 처벌,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조치 등 완전한 외교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9월 11일 부산에서 재차 시민에 의한 유사한 시위와 시위대의 일본영사관 난입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정부는 9월 13일, 다시 더욱 강한 어조의 외교문서로

서 항의하고, 이번에는 특히 일본 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엄격한 보호조치를 포함시켰다. 외무부는 위와 마찬가지 외교적 진사 조치를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한국 내의 배일적(排日的)인 군중 시위는 일본에서도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 보도되었으며 이런 사태는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극단히 자극시킴에 충분하였다. 대통령 저격사건의 외교적 해결의 출구를 찾았다고 여겼던 윤 공사는 이런 상황에 처하여 어찌하여야 좋을지 지극히 당혹스러웠으나, 당장 시이나(椎名) 사절 방한을 며칠 앞두고 양국간 민족 감정대결로 사태가 파국으로 발전되는 경우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9월 15일 다카시마 아주국장은, 아침 일찍 윤 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였다. 그 자리에는 세오 동북아 과장이 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실내분위기는 매우 무거워보였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면서, 오늘 오전 외무부내 간부회의(차관 사회의 국장회의)에서, 일본의 주권이 침해되었고 국가가 모독된 판국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통령 앞에 ‘사죄사(謝罪使)’를 파견할 경황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현재 계획중인 시이나 특사가 휴대할 박대통령 앞 다나카(田中) 수상 친서를 통상적인 다나카 수상의 김종필 총리 앞 서한으로 바꾸어 보내기로 하고 사절의 격을 한 단계 내려서 파견키로 하였다고 결정한 것으로 언명하였다.

이에 심하게 당혹한 윤 공사는 즉석에서 실망과 거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격한 어조로 대략 다음과 같이 솔직한 개인적 견해를 토로하였다. 즉 “군중 시위대의 뜻밖의 일본대사관 난입사건에 관하여는

사건발생 직후 한국외무부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느끼고 이미 차관보와 아주국장을 직접 파견하여 일본대사에게 심심한 진사와 함께 이에 대한 성의있고 완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음을 지적하고, 이 마당에서 시이나 사절파한 명분을 실질적으로 떨어트리는 일본측 조치는 이미 발표된 사절파한 계획이 오히려 없었던 것 보다 더욱 해로운 외교적 결과를 자아낼 것이며, 양국 정부까지 이러한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은 양국 국민감정을 더욱 대결적인 방향으로 촉발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아시다시피 한일 양국 간에는 국교수립 이래 본래부터 일부 대결적인 국민감정이 실존하여 있었으며, 이러한 양국간 국민감정을 안고 가끔 부딪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이 현실이다. 그것은 바로 최근의 김대중씨 사건을 서로 겪으면서 쓰라리게 경험한 바 있지 않은가. 이제 다시 왜곡된 서로의 국민감정 때문에 바로 인국(隣國) 간의 친교의 다리가 불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 양국 외교관들은 전력을 다하여 타가고 있는 다리의 불을 끄려하지 않고, 불 끄는데 필요한 조치를 외면한다면, 양국관계의 긴 장래를 위하여 그 명분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본건(本件) 일괄타결을 위한 특사파견 문제와 여러 절차가 상호 외교적 노력으로 거의 합의를 본 상황하에서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외교관례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윤 공사는 이런 견해를 일본어로 털어놓고 다카시마 국장의 넓은 양해와 재고

를 촉구하면서, 오전중 장시간 앉아 자리 를 떠나지 않았다. 묵묵부답이던 동 국장은 결단하였다는 듯이 윤 공사의 발언을 양해(諒解)하고 재고하여 보겠다고 언명하면서, 그는 오후 간부회의를 다시 소집 켜 하여 본건을 긴급히 재심토록 제의하겠다고 말하였다. 통상, 일본 외무성의 한국관계 주요 정책과 방침은 대략 아주 국장선에서 결정되는 그들 관례에 비추어 다카시마 국장의 이러한 움직임에 윤 공사는 일단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기로 하고, 이 경위 일체는 본부에 대한 보고도 보류하였다.

당일 오전, 마침 다나카 수상은 외상과 함께 예정된 미국 출장에 출발하였으며, 그의 박대통령 앞 친서에 서명만하고 워싱턴으로 향발하였다. 약간의 불안은 있었으나, 저녁무렵 재소집된 동 간부회의 결과, 본건 다시 번복하고, 한국 측과 합의된 원 계획대로 시행키로 결정을 보았다는 소식을 받고 크게 안도하였다.

이 외무성 간부회의 결정은 그날 오후 늦게 외무성 일일기자 브리핑에서도 발표되었다. 실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후문에 의하면, 첫 번째 결정은 주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사무상 한국과 직접 관계가 거의 없었던 외무성내 일부 국장들의 강한 견해가 반영되었던 것이라 하고, 재심 자리에서는 윤 공사와 평소 접촉과 교분이 두터웠던 국제기구, UN, 정보문화, 미국, 구주 등 각 국장의 유리한 견해가 지배한 것으로 전하여졌다. 특히 윤 공사와는 서로 파리 공사근무시절부터 친분이 가까웠던 마쓰나가(松永) 심의관은 윤 공사의 진술에 언급하면서, 윤 공사의 말(言分)이 맞다 하고, 우리 양국 외교관들

이 할 임무는 당장 양국간 다리에 붙은 불을 우선 끄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한 국입장에서 지지발언을 하였고, 사회 보던 도고(東郷)차관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정되었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었다.

시이나 특사는 예정대로 9월 1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 자리에서 청와대로 직행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고 다나카 수상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친서 내용은 첫째, 육영수 영부인의 비통한 서거에 대하여 우선 정중한 애도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국민에게도 저명한 친한(親韓)인사로 잘 알려졌고, 박 대통령과도 만난바 있었던 동 특사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은 엄숙하고도 순조로웠다. 특사는 다음날 김종필 총리, 김동조 외무장관과도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된 공식적 외교문서와 특사가 구술로 전한 원문을 문서로 옮겨놓은 'Oral Statement'를 전달하였다.

외교문서(note)의 내용은 대략 본사건 발생이래 양국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사항이었으며, 첫째 범인이 일본정부 발행의 여권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일본경찰 소유의 무기로써 박대통령을 저격하고 육영수 영부인을 살해한데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로서 공범에 대하여도 엄벌(Strict Punitive Measures) 조치할 것과 한국의 수사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과 아울러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본 내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전복파괴, 테러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격히 규제(control)한다고 한 후,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는 하등의 변함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당초 공식문서에는 언급할 수가 없다고 하여, 구두로만 진술할 것이었던 일본정부의 조총련에 대한 엄격규제 조치에 관한 사항도 oral statement에 포함되었다.

2일 간의 시이나 특사의 사명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대략 신문 성명으로 발표되었다. 이로써 다음날 사절단은 예정대로 한국을 떠남으로써 이 위기적 문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절단 방문중 한국 국민은 이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격렬한 시위나 요란 사태는 없었음은 다행한 일이었다.

III. 후기

1974년 8월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은 모두 한일 양국간 국민 감정에 점화되어 그 대립이 외교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위기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이런 대사건이 결국 충분치는 못하였으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착을 보게 된 것은 주로 양 정부 수뇌 간의 대승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의지와 확고한 양국 외교 통로를 통한 현실적 상호이해와 긴밀하고 꾸준한 대화의 결과였다.

여기서 양국의 외교기관 간의 상호존중과 각 단계 외교관들의 인적친밀관계가 매우 돋보였다. 양국의 두 대사는 모두 각 주재국과 외교계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은 분들이고, 동경 외무성 도고 사무차관 부친은 명성이 높았던 전 일본 외무대신이었으며, 그 선조가 조선시대 일본

으로 도래한 한국인의 후손이었다. 그는 윤 공사가 1960년 후반 외무부 구미국장 시절, 일본외무성 미주국장이었으며, 각기 한미, 일미 간 군인지위협정 하의 공동위원회 대표직에 있으면서 미국과의 군사 경제협력 사무에 있어 서로 협조하고 지냈다. 그때 윤 국장은 도고 국장 부부를 한국에 초청하기도 한 바 있다.

그는 윤 공사가 동경에 부임하였을 당시 외무성 심의관으로서 윤 공사를 환영하며 축하하여 주었다. 윤 공사 동경 재임시 그의 부부는 가끔 도고 차관 댁의 객(客)이 되기도 하였다. 이상진(李相振) 정무 참사관과 나카에 아주국 차장은 그 성격도 서로 잘 맞아 각별히 친한 사이어서 김대중씨 사건 아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진지한 대화를 통할 수 있었으며 나카에 차장은 일본 정계와 외무성내 사정과 움직임 등을 소상히 알려줌으로써 그 진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나카에 차장은 윤 공사와도 두 사람이 파리 근무시에 일본 UNESCO 사무소 책임자로서 같은 사무를 담당하면서, 친밀한 접촉을 하며 지냈다.

윤 공사가 동경에서 돌아온 후 나카에 차장은, 그간 주중일본대사를 지내고 다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으로 승진되었다. 그는 사무관계로 서울을 방문하면 윤 차관과도 유익한 회담을 가졌다. 또한 주일 한국대사관 우문기(禹文旗) 과장과 세오 일본 외무성 아주국 동북아 과장은 여러 실무적인 접촉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켰다. 서울에서도 일본 우시로구(後宮) 대사 이하 일본 대사관과의 접촉에 있어 김용식(金溶植), 김동조(金東祚) 양 외무장관, 윤석현(尹錫憲) 차관, 김정태

(金正泰) 차관보, 지성구(池成九) 및 신정섭(申貞燮) 아주국장, 박수길(朴銖吉) 동북아 과장 등 각 레벨에서 매우 질서있고 밀접한 연락과 유익한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외교란 결국 그 많은 부분이 각 상대방의 인격의 부탁침과 동업의식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한 인적 요소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이번 사건과정에서도 새삼 느끼게 하였다.

도고 차관은 그 후 주미대사를 마감으로 퇴임하였으며, 마쓰나가 심의관은 외무성 사무차관, 주미대사, 외무대신 등 일본 외무성 관례적 경력을 모두 역임하고 끝마쳤다. 다카시마 국장은 주 러시아 대사를 거친 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의 현직(顯職)을 거치면서 부인이 서거후 실의(失意) 끝에 작고하였다. 윤 공사는 가족으로부터 전화로 그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윤 공사가 1980년 주 호주대사로 재임시 다카시마 국장이 주 러시아 대사로 부임 전에 호주 칸베라에 들렸다.

늦은 밤에 갑자기 그의 전화연락을 받고, 윤 대사는 당장 대사관저로 오라하고 반갑게 만났다. 애주가(愛酒家)였던 두 사람은 오전 2시경까지 술잔을 나누면서 유쾌한 담소로 회포를 따뜻이 하였다.

1976년 윤 공사가 본부 외무차관으로 재임시 구면(舊面)의 일본 언론인, 동경 주재 외신 특파원, 청람회(靑嵐會) 회원 및 보수계 의원, 주 동경우호국대사(駐東京友好國大使) 등이 서울을 방문하면 모두 그를 찾아 주었다.

이에 앞서 윤 공사 동경 이임시 일본신문협회는 외국대사들에 대하여 전례없던 윤 공사 '고별리셉션'을 제국(帝國)호텔에서 개최하였고, 주로 일본내 언론 신문계의 주요 편집국장, 주필 논설위원, 기자들을 초대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 공사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간 그들의 호의에 감사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1986년 그 후 몇몇 대사직을 거친 후 정년퇴직하고 약 32년간의 후회없는 외무부 경력을 마쳤다. ☰